

# 좋은 나라 좋은 국민

A Good Nation & A Good Citizen

로마서 13:4-5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2년 12월 9일 설교

<sup>4</sup>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sup>5</sup>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 대통령 선거

요즘 선거철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꽤 길지요? 한 달 전까지 미국 대통령 뽑는다고 한 해도 넘게 시끄러웠는데 이제는 열흘 뒤에 한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요즘은 나라 밖에 있어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투표하신 분 있습니까? 저도 어제 아이를 맨해튼 학교에 데려다준 다음 영사관에 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줄이 꽤 길었습니다만 일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나 돼 조금도 안 기다리고 쉽게 하고 왔습니다. 지난 번 미국 대통령 선거 때는 우리 한 장로님 투표하시는 모습이 '그리니치 타임' 신문에 나왔지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스크 타는 아주 바람직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민주국가입니다. 민주! 우리 김 집사님 딸 생각나시게 해 죄송합니다만, 국민이 주인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나라의 일을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투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을 뽑는 투표입니다. 내가 직접 법도 만들고 재판도 하고 세금도 걷고 다 잘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 말고 따로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물건도 팔아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서류도 만들어야 됩니다. 밥하고 빨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 일은 따로 사람을 뽑아 시킵니다. 공직자는 국민이 고용한 머슴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이중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세상 나라에도 속했습니다. 그래서 권리도 의무도 다 이중으로 있습니다. 나라에 세금도 내지만 교회에서 헌금도 드립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대도 가고 공직도 맡는 것 이상으로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두루 봉사를 합니다. 둘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시간도 두 배로 쪼개 불신자보다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주는 혜택도 받고 그 위에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늘 누리며 삽니다.

## 일반은총

지난해 광복절 때도 잠시 살폈듯이 나라, 국가라는 단위는 일반은총에 속합니다. 보통 은총 또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 나와 앉아 있고 그 은혜 덕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지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맛보는 은혜가 다 구원에 속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해를 주셔서 밝게 따뜻하게 하시고 광합성을 통해 먹을 것을 주십니다. 비도 내려 주시고 눈에 안 보이는 공기를 주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숨 쉬며 살 수 있습니다. 살아야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할 것 아닙니까?

자연도 일반은총입니다. 밤하늘의 별, 아름다운 산과 바다, 나무, 볼 때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문화도 일반은총입니다. 운동주의 '별 헤는 밤,' 고흐의 '해바라기,' 모차르트의 '반짝 반짝 작은 별,' 셰익스피어의 '햄릿,' 올해 베니스 영화제 최고상을 받은 김기덕의 '피에타,' 이런 게 다 일반은총에 속합니다.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보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지요. 기계나 기술도 일반은총입니다. 여기 있는 프로젝터, 컴퓨터, 뒤에 있는 텔레비전, 부엌에 있는 밥솥, 이렇게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들도 일반은총이고 또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의술, 태권도, 김연아의 피겨 스케이팅 같은 것도 일반은총에 속합니다.

일반은총도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연구를 잘 해 좋은 기술을 개발하면 그거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름다운 시도 쓰고, 멋진 음악도 작곡하고, 좋은 연극이나 영화를 만드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구원과 무관하고 중립이기 때문에 쓰기에 따라서 하나님 영광의 도구도 될 수 있고 마귀의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특별한 은총을 받은 우리 책임이 더 무겁지요.

## 나라는 일반은총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단위입니다. 나라가 왜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처음에는 온 인류가 한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뭉쳐 뭘 했습니까? “위 아 더 월....” 하고 노래 불렀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뒤섞어 여러 민족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진 단위가 발전해 나중에 나라가 되었습니다. 죄 짓지 말라고 나누셨으니 나라를 죄를 줄이기 위해 주신 단위입니다. 은총입니다.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좋은 나라 나쁜 나라 구분 없이 법은 다 같습니다. 사람 죽이는 거 괜찮다 하는 나라 있습니까? 능력만 있으면 남의 것 강탈해도 된다 하는 나라도 없지요? 중동 지역의 함무라비 법전이나 우리 고조선의 팔조금법이나 이십일 세기 한국이나 미국의 법도 핵심은 거의 같습니다. 살인, 강간, 폭력, 강도, 도둑질, 사기, 이런 걸 다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마음에 주신 양심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에 바탕을 두고 만든 법은 대부분 하나님 마음에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라의 통치자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자’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교회 직분자를 가리키는 바로 그 말입니다. 누구 말입니까? 로마 황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관리들이지요. 불신자요 이방 종교를 장려하던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아 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선징악, 선을 장려하고 악을 벌주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나라마다 시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선이고 어기는 건 악입니다. 그렇게 어긴 사람에게는 벌이 주어지는데 그 벌 역시 ‘진노하심’ 곧 하나님의 벌을 대신 주는 겁니다.

그런데 벌 받을 게 겁이 나 법을 지키는 그런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각 나라마다 가진 그 법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양심의 법을 글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혹 벌을 안 받아도 우리 양심을 어긴 것이니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양심을 위해 지키라는 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 나라가 없다면

만약 나라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정부주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국가라는 게 아예 없어진다면, 세금 같은 것 안 내겠지요. 고속도로에서 백 마일로 달려도 아무도 안 잡을 겁니다. 그게 다겠습니까? 나라가 없다면 세금 낼 돈 어디서 벌 겁니까? 고속도로는 누가 만들고요? 마구 빼앗을 겁니다. 닥치는 대로 죽이겠지요? 살인, 강도, 강간, 폭력 같은 범죄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온 세상이 난장판이 될 겁니다. 그런 난장판을 보통 무슨 천지라 부릅니까? 예, 무법천지. 법이 없는 세상, 곧 나라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죄가 더 많아지겠지요. 죄가 많은 만큼 죄인도 많아지지만 피해자도 많아집니다. 누가 피해를 봅니까? 약한 사람이 보겠지요. 힘 없는 사람, 뺨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지식 없는 사람, 연줄 없는 사람이 당합니다.

지구 전체를 다스리는 세계정부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뭘 합니까? 국방이라는 걸 합니다. 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만들고 군대를 보유합니다. 안 하면 먹히니까 해야 됩니다. 그렇게 국제사회는 힘 센 놈이 임자입니다. 강대국 마음대로입니다. 힘없는 나라는 당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당해 남북으로 갈라져 아직도 통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라라는 게 없다면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체력도 기르고 무기도 사 놔야 됩니다. 각 가정마다 교육비, 주택비, 식비보다 무기구입비가 더 많이 들 겁니다. 왜요? 이웃집 사람이 기관총을 갖고 와 돈 내놔 하는데 권총 가지고 어떻게 막겠습니까?

나라가 있어 질서가 있고 평화가 있고 약자도 보호를 받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무질서가 오고 혼란이 오고 약자가 피해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라를 주시고 법을 주셨습니다.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 하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주신 뜻, 곧 하나님이 나라를 통해 세우고자 하시는 선을 성경에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평화입니다 (딤후 2:1-4). 싸움이 없는 게 평화지요. 나라가 있어 우리가 안 싸웁니다. 기관총 같은 것 없어도 되고 모르는 사람하고 샷대질도 안 해도 됩니다. 대신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식구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고 어른은 일터로 가 일하고 자녀들은 학교로 가 공부를 합니다. 평화가 있으니 낚시도 가고 테니스도 치고 음악회에도 가고 친구 만나 수도도 텃니다. 평화가 있으니 교회에 와 예배도 드리고 성도의 교제도 나눕니다.

평화가 없으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시리아나 이집트처럼 나라가 있으면서 난리를 치는 수도 있지만 아예 나라가 없어 평화가 없는 민족도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팔레스타인 아이들 보세요. 제 나라를 못 가졌으니 어린아이 때부터 자살폭탄 놀이를 하며 자랍니다. 가장 시급한 일을 해결 못 했는데 거기서 좋은 문학, 아름다운 그림, 훌륭한 기술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티베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들어 벌써 수십 명이 분신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대국 중국에 눌러 있다 보니 신문에도 잘 안 나옵니다. 거기 비하면 내 나라를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물론 일제 청산도 안 되고 독재 유산도 아직 많지요. 하지만 적어도 사람답게 살 기본적인 평화는 있기 때문에 반기문 같은 인물도 나오고 싸이도 나오고 김연아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답게 사는 삶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전쟁 중에서도 말씀 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지만 평화가 있어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평화가 있을 때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또 노력도 해야 됩니다. 데모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라가 나라 구실을 못 한다면 데모도 하고 싸워야지요. 총칼 앞에 입 다무는 침묵이나 안정을 가장한 억압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러니 데모가 아예 필요가 없도록 지도자가 썩지 않게 기도하고, 감시하고, 경고하는 것도 평화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 정의를 위하여

나라를 주신 두 번째 뜻은 정의입니다.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 14:34). 나라의 영광은 의, 곧 정의입니다.

정의는 공평한 겁니다. 따지고 들어가면 어렵지만 상식선에서는 모든 게 쉽고 분명합니다. 이를테면 한국에서 누가 몇 천만 원을 사기치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명한 기업가는 수천억을 떼먹었는데 집행유예가 되어 감옥에도 안 가고 얼마 뒤에는 나라를 위해 일을 많이 했다고 사면까지 받았습니. 이걸 사자성어 두 개로 뭐라 부르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조그만 죄를 지어도 벌을 받고 돈이 많으면 큰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습니다. 정의가 없는 나라요 부끄러운 나라입니다.

미국이라고 정의가 완전하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가진 자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걸 보면 미국은 자랑스러운 나라가 맞습니다. 역만장자도 내부자거래 같은 걸 해 법을 어기니까 감옥에 갑니다. 전 커네티컷 주지사도 조그만 법 하나 어겨 감옥에 일 년 갔다 왔습니다. 강자의 힘을 제어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 필요한데 법이 강자 편에서 버린다면 하나님이 나라를 주신 뜻과 반대로 가는 거니 영광이 변해 치욕이 됩니다.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나라가 지켜 주기 때문에 우리가 다 무기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두둔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모두가 잘잘못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를 받아야 되겠지요.

## 사람은 썩었다

하나님이 나라를 주신 것은 사람이 썩었기 때문입니다. 모이면 죄만 지으니 나라로 나누셨습니다. 사람은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주신 그 뜻과도 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곧 하나님의 특별한총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일반은총으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활용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가장 먼저 사람이 썩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자로 인간의 전적 부패라 하지요. 사실 세상에 여러 가지 정부가 있지만 민주주의가 가장 인기가 있는 이유는 인간은 다 썩었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부패한 줄 알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권력을 나눕니다. 권력은 물하고 같아서 한 곳에 모이면 썩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삼권분립을 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여 서로 안 썩게 돕습니다. 요즘은 거기다 언론이랑 시민단체가 추가되었습니다. 삼권분립을 해도 결국은 다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옆에서 또 감시하고 폭로하는 자유 언론이 필요하고 또 사회가 갈수록 전문화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지식을 활용하는 환경단체나 소비자단체 같은 전문가 집단도 꼭 필요합니다.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누드 프로젝트’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다 벗겠다, 다시 말해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추진한 모든 사업의 관련서류를 공개해서 사업이 어떻게 기획되고 추진되었는지 사업자를 어떤 과정을 거쳐 선정했고 일은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낱알이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문서가 천 가지가 넘고 분량이 만 이천 페이지라 합니다. 대단하지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난 자료가 지금까지는 왜 공개가 안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 숨겼으니 얼마나 썩었겠습니까? 이 미국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내가 내 일 대신 해 달라고 사람을 뽑아 시켰는데 이 머슴이 근육 좀 생겼다고 못 보여 주겠다 버티면 그게 말이 됩니까?

## 좋은 대통령 좋은 국민

저는 대통령 후보를 고를 때 몇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가 정의와 평화를 위해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되지요. 전두환 시절에도 구호는 늘 '정의 사회 구현'이었습니다. 그 래 놓고 어디로 다 빼돌렸는지 추징금 천 몇 백 억을 끝까지 안 내고 있지요?

또 하나가 말과 행동의 일치입니다. 인격이지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살펴봐야 됩니다. 대통령은 권한도 가장 크지만 온 나라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배웁니다. 바른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야 나라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통치 역량도 중요합니다. 넓게 볼 줄 알아야 되고, 정확한 판단력,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통솔력이 있어야 되고, 일을 할 때는 추진력도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인간의 부패를 아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자기 파악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런 사람은 열린 사람이 됩니다. 내가 썩은 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나도 살고 나라도 살리는 사람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견제나 조언에 언제나 마음을 열어놓고 또 언론이나 시민 단체 같은 감시 장치도 이중 삼중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그건 핵심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기독교인 후보가 없어 교회가 조용합니다만 지난번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말은 좋지요. 바른 기도를 해도 그게 대통령 자질과 관련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되겠지만 발람 같은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정말 부끄러운 사건이 삼일오 부정선거 아닙니까? 그 때 부정선거를 주도한 내무부장관이 교회 집사였는데 부정선거 전날 밤 교회에 들러 기도를 오래 하고 갔습니다.

## 우리의 책임

결국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좋은 일꾼이 필요하고 그러자면 우리는 열심히 투표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한 장로님 마스크 탄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정치는 더럽다 하지만 더럽다고 외면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결정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내립니다. 투표 말고도 할 일이 많지만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통해 정의와 평화를 주시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겠지요.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완전한 평화, 완전한 의로움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미 아는 우리는 더더욱 나라를 위해 많이 기도하고 애써야 되겠습니다.

조국의 대통령 선거를 열흘 앞두고 우리 많이 기도합시다. 선거 과정부터 평화롭고 정의롭도록, 또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갈 일꾼이 선출되도록, 그리고 이 일에 참여하는 모두가 나라를 두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도록,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로 가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권수경 목사)